

vol.131

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Special News

언론중재위원회
전자심리제도 본격 시행



5

2011.May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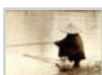
5

CONTENTS

0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 전자심리제도 본격 시행

04  위원단상
신라 문화재 다시보기

05  직원마당
The NET

06  조정후기
기다림의 중요성

07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몽구스(The Mongoose)<88>

08 위원동정

09 위원회 소식

10 위원회 통계 현황

언론중재위원회 전자심리제도 본격 시행



언론중재아이넷(<http://people.pac.or.kr>) 접속하면,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통해서도 아이넷 접속이 가능하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언론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전자심리제도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자심리제도의 시행으로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나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건을 맡은 중재부도 종이서류 없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작년 말 전자심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월부터 4개월간의 시스템 안정화작업을 통해 전자심리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DDos 방어시스템, 가상사설망, 안티 바이러스 등을 도입해 강력한 보안 환경을 구축했으며, 외부 전문 위탁기관에 전산장비를 설치해 물리적인 보안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운영 환경을 마련했다.

시스템을 이용해 조정·중재를 신청하려면 먼저 언론중재위원회 민원 포털인 '언론중재 아이넷(<http://people.pac.or.kr>)'에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인터넷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석요구서나 기타 제출자료 등 심리진행과정에서 송달받아야 하는 모든 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4월부터 특허법원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법원도 지난 5월부터 민사사건에도 전자소송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실생활 분야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심리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민원인이 언론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고, 각종 문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대국민서비스 만족도의 향상과 신속한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운 위원
경남중재부

신라 문화재 다시보기



흔히 우리 문화를 ‘금수강산문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가 아름답고 섬세하다는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 규모면에서 작고 웅장하지 못하다는 뜻도 담고 있다. 실제로 유럽을 여행한 사람들 중에는 경주에서 신라문화재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라문화재는 이집트나 로마 혹은 터키문화재와 비교할 때 웅장함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황룡사터를 보고 나면 이런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황룡사터는 과거 우리문화가 장대하고 웅장했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사찰터만 보아도 신라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가슴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황룡사는 건립 기간이 오래 걸렸다. 진흥·진지·진평·선덕여왕에 이르기까지 4대 9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날림공사로 인해 국가신용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신라 사람들이 황룡사를 건립하는데 이처럼 긴 시간을 들였다는 것은 많은 교훈을 준다. 사찰의 면적 역시 우리들을 놀라게 한다. 옛 문헌은 황룡사터가 불국사의 8배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황룡사의 경우 지금까지 나타난 사적지만 해도 2만5천여 평이다. 절터는 동서 288m, 남북 281m나 되며, 사역 내에 있는 우물터 역시 넓고 많았다. 황룡사에는 그동안 발굴탐이 찾아내 다시 복원한 우물터가 있는데, 크기에서 보는 사람들을 압도한다. 분황사에 있는 삼룡변어정(三龍變魚井)의 3~4배가 넘는데, 이런 우물이 50여개나 있었다고 한다. 이 사찰에서 자장과 원효, 원광 등 고승들이 머물면서 강론을 했다. 이들 고승들은 설법을 끝낸 후 학생들과 함께 이 우물에서 목을 축였을지도 모른다.

치미(목조건물을 세울 때 용마루 좌우에 장식하는 기와) 크기 역시 다른 사찰의 추종을 불허한다. 강당터에서 발견되어 현재 경주 국립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치미는 높이가 182cm, 폭이 105cm나 된다. 그동안 높이 1m인 일본 동대사의 치미가 동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황룡사 치미가 발견되면서 이런 통설을 바꾸어 놓았다. 이 치미는 황룡사 건축물의 크기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치미의 크기로 볼 때 당시 황룡사 대웅전의 건축물은 오늘날 천안에 세워진 독립기념관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한다. 술거가 황룡사 대웅전에 그린 노승이 진짜인 줄 알고 참새떼가 몰려와 앉다가 벽에 부딪혔다는 말이 실감있게 들린다. 아마 대웅전이 컸기 때문에 소나무 그림 역시 실물 크기로 그렸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 참새들도 술거의 그

림을 진짜 소나무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대웅전에 세워졌던 장륙존상(丈六尊像) 역시 대단한 크기였다. 『삼국유사』는 장륙존상이 진흥왕 34년(574)에 조성되어 이듬해 완성되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장륙존상의 크기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은 것이 없어 그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부처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쇠의 양이나 현재 남아 있는 대좌의 크기를 볼 때 높이가 5m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찰이 크다보니 종 역시 클 수밖에 없었다. 종의 무게는 49만 근으로, 에밀레종으로 잘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보다 4배 이상 컸다. 이 종이 성덕대왕 신종과 비슷한 시기에 주조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종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클 뿐 아니라 대단한 아름다움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종은 몽고가 고려 침입때 본국으로 가져가다 동해에 빠뜨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찰에서 신라인의 웅대한 기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9층 목탑터다. 목탑터는 금당지 바로 앞에 있는데, 우선 높이부터 상상을 넘어선다. 목탑은 탑신부의 높이가 65m, 상륜부가 15m로 전체 높이가 무려 80m나 된다. 요즘 건물로 보면 아파트 30층 높이다. 당시로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았을 것이다. 목탑터에는 목탑의 초석이 옛 모습 그대로 박혀 있다. 평면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초석은 가로, 세로 각각 8개씩 합해 64개인데, 옛 모습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 탑은 고려시대까지 있었으며, 9층 탑에 올랐던 고려시대 시인 목객들이 남긴 시가 많아 지금까지도 전해 오는 것이 적지 않다.

외곽에서 보면 황룡사터는 실제로 허허벌판으로 쓸쓸하게 보인다. 이 때문에 모처럼 경주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 중에도 황룡사는 사찰이 모두 불타 지금은 주춧돌만 있을 뿐 불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는 안내인들조차 황룡사 인근에 있는 분황사는 자세히 소개하면서도 황룡사터에 대해서는 “이곳이 옛날에 황룡사라는 절이 있었던 곳입니다”는 말만 남기고 그냥 지나간다. 문화재는 책이나 영상을 통해 보는 것과 문화재가 숨쉬고 있는 현장에서 보는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보면 황룡사터야말로 신라의 살아 있는 자연박물관이다. 경주에 들러 황룡사터를 보지 않은 사람은 참된 신라 문화를 보지 못했다고 감히 말 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The NET



박 찬 서
총무팀

The NET

필자가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물론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영화와 음악이야기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 싶었지만, 조정중재시스템과 깊은 인연이 있는 지라 “The Net”이라는 영화를 통해 IT에 대해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이 영화는 “Speed”로 유명해진 산드라 블록이 주인공 안젤라 베넷으로 분했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주인공이 개인정보가 뒤바뀜으로 인해 겪게되는 에피소드로 이루어졌다. 안젤라는 프로그램 테스터인데, 어떤 디스켓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동료의 의문의 추락사를 당하게 된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된 것을 알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엉뚱한 여자가”안젤라 베넷”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여권은 생전 처음 듣는 이름으로 재발급되며, 자신도 모르게 집이 매물로 나오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디스켓에 대한 음모와 증거들을 FBI에 보낸 후 안젤라는 본인을 되찾게 된다.

이 영화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IT가 필요악인 시대에 IT시스템의 혼란이 어떤 사고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처음 이 영화를 보았을 땐 천재 해커가 존경스러워 나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대학시절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킹 관련 기술을 익히며 시뮬레이션(물론 지극히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을 통해 프로그램 능력을 향상시킨 기억이 있다. 해킹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개발언어 등 수많은 IT기술들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킹으로 인해 IT시스템에 저장된 디지털 기록들이 바뀌거나 삭제되면 개인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영화에서 주인공 안젤라 역시 본인의 이름이 ‘루스 막스’로 바뀌고 각종 전과 등이 더해져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다. 영화에서는 그녀가 결국 인생을 되찾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인간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영화의 스토리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까?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인 95년도에 발표되었다. 당시에는 엉뚱하고 발칙한 상상이라고 평가받았지만, 지금의 시대를 보라! 영화가 그리고 있는 세계보다 더 영화같은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 되고 있다. 모든 기록들에 대한 저장과 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며, 예전처럼 수작업으로 색인을 하고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는

것은 비능률적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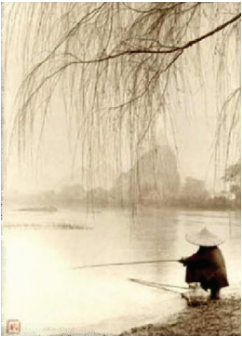
사상 최악의 금융시스템 해킹이라는 농협 사태를 보면서 일반인들은 물론 IT 관련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해 온 나조차도 놀라움과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일단 해당 서버에 침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Delete”와 같은 위험한 명령어는 “Super Admin”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가능한데, 이조차도 많은 인증 단계를 거쳐야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커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면, 멀쩡한 사람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거나 서로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 중요한 회사기밀이나 기술을 해킹하여 경쟁업체에 넘길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군사정보를 해킹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악의 사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보안기술이나 장비로 효율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다음 기회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를 제외하면 원인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정보보안에 대한 도덕적 해이이다. 핸드폰 번호와 같은 사소한 정보도 보이스피싱, 광고, 대출사기 등 여러 가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의도적인 해킹도 많지만 재미삼아, 때로는 본인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한 해킹은 더욱 심각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둘째, IT 시스템에 대한 맹신이다. IT는 분명 17세기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IT기술은 오히려 인간을 IT에 종속시키고 있다. 생각해 보라! 출근시간에 교통카드 시스템이 고장이 난다면, 중앙관제센터에서 도로교통상황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내 그룹웨어시스템에 장애가 생긴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현대사회는 IT시스템에 너무나 종속적이다. 어찌 보면 IT시스템은 ‘주인’이고 인간은 IT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몸종’이 되어 버렸다. 정보란 공유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를 견실히 구축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이전에 정보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인성교육”이 먼저다. 아울러 IT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회 제도에 대한 개선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아무리 많은 보안장비와 솔루션을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밝은 미래로 가는 열쇠는 인간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기다림의 중요성

이수종

서울제4중재부 조사관(조사팀 차장)



‘기다림’ 하면 강태공이 떠오른다. 그는 은나라 말기 위수 반계천에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3,600개의 곤은 낚시로 세월을 낚다가, 마침내 주나라 문왕인 서백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결국 서백의 아들 무왕을 도와 천하를 평정한다. 강태공이 서백을 만난 것이 그의 나이 72세. 이를 일컫는 ‘궁팔십달팔십(窮八十達八十)’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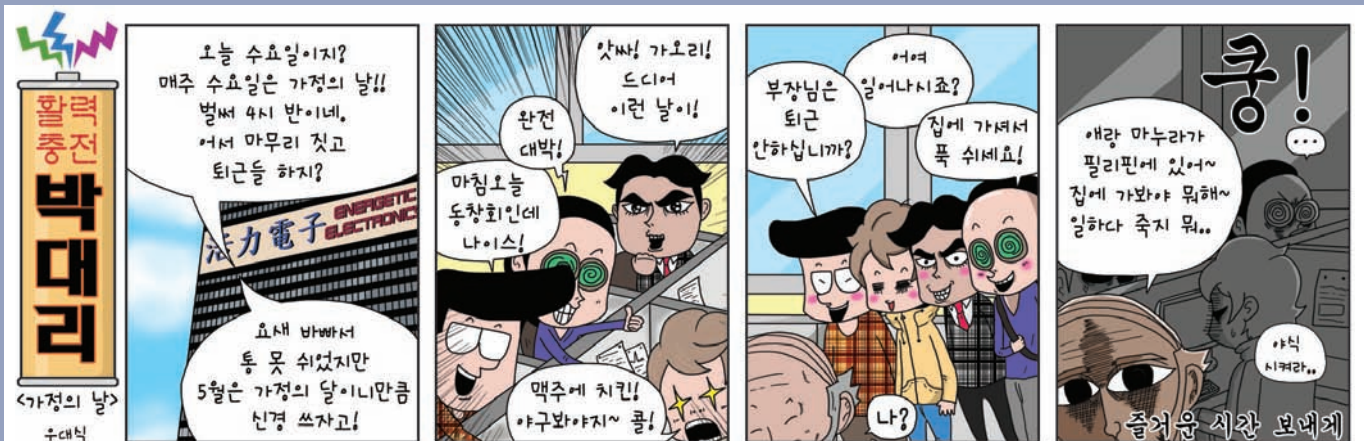
고사가 전해져 온다. 인생의 전반부인 80세까지는 궁하게 살다가, 이후 80년을 영광되게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기다림의 진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기다림’은 때때로 조정사건에서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A 인터넷신문사는 대한민국 유수의 B 항공사에 관한 부정적 기사를 76일간 무려 22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내용 또한 다양해서 B 항공사의 신규사업에 대한 비판, 특정 노선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기체결함 및 안전도에 대한 고발 등의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B 항공사는 정정·반론·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도 A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별도로 이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링크를 해제해 줄 것을 부가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다분히 A 언론사의 영향력은 신경 쓰지 않고, 포털 기사의 전파력만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졌다. 또한 일부 기사에 대해서만 링크삭제 등을 요

청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22개의 기사 모두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심리 전에는 보도내용을 둘러싼 양 당사자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보도행태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고, 피신청인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포털 링크를 일부가 아닌 22개 모두 삭제하는 것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 고려도 필요했다. 1차 심리과정에서 신청인의 요구는 언론사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피신청인 주장과 법원에 가서라도 청구를 유지하겠다는 신청인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사건은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재부는 성급하게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리는 대신 2차 기일을 지정해서 좀 더 숙의할 것을 권고했고, 중재부의 제안은 주효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양 당사자는 차분히 득실을 따져볼 기회를 갖게 되었고, 2차 기일에 참석한 당사자들은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훨씬 성숙한 상태에서 서로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결국 신청인이 정정·반론보도게재와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대신,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들의 포털 링크를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단 일주일의 여유 끝에 조정성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다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몽구스(The Mongoose) <88>

이일환(음악방송 Satio PD)

일본의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는 1994년 '일본연구 교토회의'에서 '세계문학은 일본문학일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이 발표에서 오에는 일본문학의 범주를 다음의 셋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세계와 고립된 문학. 예를 들면 「설국」으로 1968년 노벨상을 수상한 카와바타 야스나리, 미시마 유키오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작가이다. 두 번째는 세계문학에서 공부한 작가들의 문학으로, 아베 고보나 오에 겐자부로 자신이 속한다. 세 번째는 '서브 컬처' 범주로 요시모토 바나나,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작가를 예로 들 수 있다.

오에는 이 강연에서 어쩌서 세계에서 고립된 첫 번째 범주에 노벨상이 주어졌는지, 세계문학에서 많은 것을 본질적으로 수용하여 독자적인 창작을 지속하는 두 번째 범주는 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강연 전에 그의 노벨상 수상이 결정되어 원고를 수정해서 발표하는 바람에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의 웃음과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오에가 일본문학이 세계문학일 수 있는지 묻지 않고 세계문학이 일본문학일 수 있는지 묻은 것은 '고립된 일본문학'이 아니라 '세계문학과 소통하는 일본문학'을 조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5년 전의 원고인 만큼 세부적인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오에의 분류를 음악에 적용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세계음악은 한국음악일 수 있는가?

아시다시피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대중문화, 한국의 음악이 동남아와 일본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오에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서브컬처'의 범주에 속하는 가수들이다. 이들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비평적으로 의미 있는 평가나 주목 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이들 음악이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두 번째 범주, 상업적인 성공여부와는 별개로 세계의 음악으로부터 많은 것을 수용하여 독자적인 성취를 이루어낸 한국 음악에 있다. 이런 작업들은 지금까

지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세계의 관심은 차치하고 국내의 관심과 주목도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지금 소개하는 몽구스가 그렇다.

2007년에 발표된 몽구스의 세 번째 앨범 「The Mongoose」는 자신들이 왜 '넥스트 빅 씽(next big thing)' 인지 증명해주었던 음반이었다(몽구스도 홍대에서는 스타 밴드이다). 인터뷰에 의하면 <88>이라는 곡은 제목에서 짐작되듯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의 축제 분위기를 담아낸 댄스곡이다. 사운드도 복고적이어서 당시 롤러장 출입에 익숙한 분이라면 거부감 없이 즐

길만한 음악이다. 다만 '런던보이스'나 '모던토크' 보다는 '뉴 오더(New Order)'의 계보에 속한다는 점에서 인디팝과의 연대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요즘 가사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밤이 피는 숲', '나의 친구여', '내 몸은 연기처럼', '우주는 사랑이라'와 같은 표현들도 다분히 80년대적이다.

그렇다면 이 음악은 80년대의 재현, 혹은 회고적인 퇴행인가? 물론 현재 세계음악계에 복고적인 접근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몽구스의 경우 단순히 유행



에 편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멤버들은 1980년대 음악을 당대에 즐기던 세대가 아니다. 이들이 가진 기억은 서울올림픽의 들뜬 분위기 정도일 것이다. 이들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80년대와 접촉했다. 디지털 신서사이저가 등장하여 새로운 음악적 실험이 이루어지던 시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풋풋하고 신선한 사운드가 미러볼처럼 반짝반짝 빛나던 시대, 온 몸으로 즐길 수 있는 즐거운 댄스 음악이 창조되던 시대로 구성된 80년대와 접촉한 것이다. 이 접촉지점에서 1980년대의 세계음악은 20년이라는 시간차를 뛰어넘어 한국음악으로 발화하고 있고 국제적인 복고의 조류 속에서 동시대적인 지위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양념처럼 차용된 세계음악이 아니라 소화되고 체화된 세계음악은 이렇게 한국음악이 되어가고 있다.

COMMISSIONER



◀ 2011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 참석

조성호 위원(대구중재부,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4월 22일 충남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2011 한국방송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방송사업자로서 종합편성채널의 바람직한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조 위원은 "종합편성 채널이 방송 콘텐츠 시장에 긍정적인 자극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주교대, 목포대와 상호교류 협정

박남기 위원(광주중재부, 광주교육대 총장/ 사진 오른쪽)은 4월 20일 목포대와 교육, 연구, 사회봉사 분야에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박 위원은 "양 대학 간 활발한 교류가 지역 내 국립대 간의 교류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다양한 교류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주교육대



◀ '재외국민선거 공명성 확보 방안과 과제' 토론회 참석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4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외국민선거 공명성 확보 방안과 과제'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용철 부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재외국민투표 준비 상황과 예상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이 논의됐다.

▶ 충북지역개발회 사무총장 임명

조덕현 위원(충북중재부, 전 충북일보 논설주간)은 4월 15일 사단법인 충북지역개발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충북지역개발회는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기금을 조성해 체육, 문화예술, 상공, 시민사회 등에 전달하고 있다.



◀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주년 기념강연 주제발표

김정숙 위원(대구중재부, 영남대 국사학과 교수)은 오는 11일 대신학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주년 기념 경축대회 초청강연회에서 '대구교구를 이끈 교구장'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창립 30주년 기념 등반



위원회 사무처는 4월 15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북악산 서울성곽을 등반했다. 이번 등반에는 서울사무처 직원과 10개 지방사무소 직원이 모두 참여해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다.

제주토론회 개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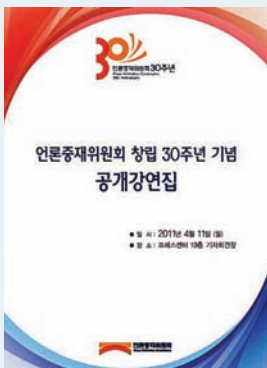
위원회는 5월 13일 제주 KAL호텔에서 '제주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 구조 특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부상준 제주중재부 중재부장(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사회를 맡고, 최낙진 제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인사

위원회는 5월 2일자로 사무처 직원 2인을 신규 채용했다.

[일반직 5급 신규채용] 박지환, 정승희

언론중재위원회 창립30주년 기념 공개강연집 발간



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창립 30주년 기념 공개강연의 내용을 수록한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0주년 공개강연집」을 발간했다. 강연집에는 서울대 철학과 백종현 교수의 '칸트에서 법·윤리의 조건과 바탕'을 주제로 강연한 내용과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이 '유학사상과 정의·중국의 패권주의와 관련하여'를 주제로 강연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발간



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2010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된 사건 중 시사적 가치가 큰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한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이용자들이 사례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류했으며, 전체 사건 목록을 별도로 실어 상세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사례집은 국회, 공공도서관, 대학, 언론기관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2011년 4월, 언론중재위원회는...



● 조정·중재신청 처리 현황

위원회는 2011년 4월까지 모두 606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178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43건(동의 24건, 이의 11건, 계속 8건), 조정불성립결정 61건, 기각 8건, 각하 2건, 취하 282건(216건), 계류 32건이며, 피해구제율은 75.2%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 170건, 인터넷뉴스서비스 148건, 방송 45건, 뉴스통신 28건, 잡지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4월까지 50건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21건, 반론청구 17건, 추후청구 12건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 해 구제율 (%)
			조 성 성 립	동 의	직 권 이 의	조 정 결 속	조 정 불 성 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1~4월	정 정	264	95	14	7	6	28	4	0	91(58)	19	71.1
	반 론	45	23	2	0	0	3	0	0	10(8)	7	86.8
	추 후	45	0	0	0	0	0	0	0	45(44)	0	97.8
	손 배	252	60	8	4	2	30	4	2	136(106)	6	73.1
합 계		606	178	24	11	8	61	8	2	282(216)	32	75.2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피해구제율=피해구제된 건수/조정건수

중재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중 재 결 정	중 재 화 해 결 정	기 각	계 류
1~4월	정 정	21	21	0	0	0
	반 론	17	17	0	0	0
	추 후	12	12	0	0	0
	손 배	0	0	0	0	0
합 계		50	50	0	0	0

● 2011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 현황

2011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출범한 이후 4월 25일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총 25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 위반 5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조항 위반 20건이며 결정 내용별로는 경고결정문 게재 1건, 주의 사실 게재 3건, 주의 21건으로 나타났다.

●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4차 회의를 열어 자체 심의한 언론보도 중 총 51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피의자 신원공개 20건, 마약 및 약물보도 17건, 자살자 신원공개 10건, 사생활 침해 4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32건, 일간지 10건, 뉴스통신 7건, 주간지 2건이다.

● 상담 현황

위원회는 4월 한 달 동안 175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기관 안내 19건, 재상담 예정 12건, 기타 4건, 법적절차 안내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별로는 일간신문에 대한 상담 건수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41건, 방송 31건, 주간신문 14건, 뉴스통신 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교육 현황

위원회는 2011년 4월말 현재 39회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언론사 10회, 지자체 3회, 교육연구기관 10회, 인터넷 프로그램 9회, 법무 수습교육 1회, 대학 2회, 기업체 1회, 기타 3회 등이다.



위원회 소개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1. 신청기간

조정·중재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언론중재아이넷(<http://people.pac.or.kr>)을 방문하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용방법과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신 경우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 02)397-3000, 3010, 3100, 3110

e-mail : counsel@pac.or.kr

홈페이지 : www.pac.or.kr

트위터 : [www.twitter.com/pac_news](https://twitter.com/pac_news)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잘못된 언론보도는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신문·방송은 물론, 이제는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정·중재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에 의한 방법 외에 구술, e-mail,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은 물론, 개정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